

연구실 소개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실(현문실)은 다수의 청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 있다. 현문실 멤버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주로 중국 대륙에 국한되어 온 점에 유의하면서,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타이완·홍콩 및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화인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 및 중국계 사람으로서 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문학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멤버 각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출발하되 한국,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 몸소 생활하고 연구해 본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 및 중국 문화와 문학에 관한 새로운 시야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원

고운선 · 고찬경 · 고혜림 · 김소정 · 김혜준 · 량난
 여효림 · 문희정 · 박춘식 · 송주란 · 이고은 · 이현희 · 전금
 전남윤 · 정인혜 · 주홍 · 차수경 · 최말순 · 최성경 · 필문수

번역 사업

현문실에서는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출판사와 함께 '현대 중문 문학 대표 작품 시리즈'를 출간 중이다. 현재까지 1, 2, 3차분 총 18 종이 출간된 이 시리즈는 지난 100년간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및 세계 각지에서 중문으로 발표된 대표적인 문학작품 가운데서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엄선한 것이다. 현문실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이 시리즈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화인들에 대해 새롭게 체험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번역서 소개

현대 중문문학 대표 작품 1차 시리즈(총 7종)



- 예웨이렌 시선(葉維廉詩選)** 예웨이렌(葉維廉) 지음, 고찬경 옮김
- 장기왕(棋王)** 장시궈(張系國) 지음, 고혜림 옮김
- 원향인(原鄉人)** 종리허(鍾理和) 지음, 고운선 옮김
- 나의 도시(我城)** 시시(西西) 지음, 김혜준 옮김
- 시바오 이야기(喜寶)** 이수(亦舒) 지음, 문희정 옮김
- 20년간 내가 목격한 괴이한 일들(二十年目睹之怪現狀)** 우젠런(吳趸人) 지음, 최형록 옮김
- 문명소사(文明小史)** 리바이위안(李伯元) 지음, 김소정 옮김

현대 중문문학 대표 작품 2차 시리즈(총 6종)



- 홍콩 시선 1997~2010(香港詩選 1997~2010)** 롱빙관(梁秉鈞) 외 지음, 찬짜딱(陳智德) 엮음, 고찬경 옮김
- 뱀 선생(蛇先生)** 라이허(賴和) 지음, 김혜준 · 이고은 옮김
- 회오리바람(旋風) 1, 2** 장구이(姜貴) 지음, 문희정 옮김
- 혼수로 받은 수레(嫁粧一牛車)** 왕전허(王禎和) 지음, 고운선 옮김
- 고도(古都)** 주텐신(朱天心) 지음, 전남윤 옮김
-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後殖民食物與愛情)** 예쓰(也斯) 지음, 김혜준 · 송주란 옮김

현대 중문문학 대표 작품 3차 시리즈(총 5종)



-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又見棕櫚, 又見棕櫚)** 우리화(於梨華) 지음, 고혜림 옮김
- 침몰하는 섬(沈淪) 1, 2** 종자오정(鐘肇政) 지음, 문희정 옮김
- 이리(狼)** 주시닝(朱西甯) 지음, 최말순 옮김
- 침묵의 섬(沈默之島)** 쉰웨이진(蘇偉貞) 지음, 전남윤 옮김
- 양팔 저울(天平)** 타오란(陶然) 지음, 송주란 옮김

기타

- 술꾼(酒徒)** 류이창(劉以鬯) 지음, 김혜준 옮김(서울: 창비, 2014 예정)
- 현대 중국 소설가 20인(跨世紀風華·當代小說二十家)** 왕더웨이(王德威) 지음, 김혜준 옮김(서울: 학고방, 2014 예정)

研究室介紹

釜山大學現代中國文化研究室(現文室)由多位青年學者組成共同探索中國研究的新視角。現文室的成員們認識到以往韓國對中國的關注和研究主要針對中國大陸的局限,力求更多關注中國大陸以外的台灣·香港以及散居世界各地的華人。換句話說,鑒於中國人和華人之間存在的差異,他們的文化和文學應該得到足夠的重視。有待成員們從自己的專業領域出發,積極結合自身在韓國、中國以及其他地區的生活和研究經驗,開創中國和中國文化/文學研究的新視野。

研究員

高韻璇·高贊敬·高慧琳·金素貞·金惠俊·梁楠
呂曉琳·文晞禎·朴春植·宋珠蘭·李高銀·李賢姬·錢錦
全南玟·鄭仁惠·周虹·車秀景·崔末順·崔成卿·畢文秀

翻譯工程

現文室與知萬知出版社一起籌劃‘現代中文文學代表作品系列’的出版。迄今為止已經出版的系列1·2·3共18本作品都是嚴選過去100年間中國大陸和台灣,香港以及世界各地用中文出版而尚未譯介到韓國的代表文學作品。現文室的全體成員真誠希望這些作品系列能成爲韓國讀者重新體會和認識中國、中國人以及華人的契機。

翻譯書介紹

現代中文文學代表作品選 第1次(總7本)

葉維廉詩選,葉維廉著,高贊敬譯(首爾:知萬知,2011.2)
棋王,張系國著,高慧琳譯(首爾:知萬知,2011.2)
原鄉人,鍾理和著,高韻璇譯(首爾:知萬知,2011.2)
我城,西西著,金惠俊譯(首爾:知萬知,2011.2)
喜寶,亦舒著,文晞禎譯(首爾:知萬知,已印完還未出版)
二十年目睹之怪現狀,吳趼人著,崔炯祿譯(首爾:知萬知,2011.2)
文明小史,李伯元著,金素貞譯(首爾:知萬知,2011.2)

現代中文文學代表作品選 第2次(總6本)

香港詩選 1997-2010,梁秉鈞等著,陳智德選編,高贊敬譯(首爾:知萬知,2012.9)
蛇先生,賴和著,金惠俊·李高銀譯(首爾:知萬知,2012.9)
旋風,姜貴著,文晞禎譯(首爾:知萬知,2012.9)
嫁粧一牛車,王禎和著,高韻璇譯(首爾:知萬知,2012.9)
古都,朱天心著,全南玟譯(首爾:知萬知,2012.9)
後殖民食物與愛情,也斯著,金惠俊·宋珠蘭譯(首爾:知萬知,2012.9)

現代中文文學代表作品選 第3次(總5本)

又見棕櫚,又見棕櫚,於梨華著,高慧琳譯(首爾:知萬知,2013.12)
沈淪,鐘肇政著,文晞禎譯(首爾:知萬知,2013.12)
狼,朱西甯著,崔末順譯(首爾:知萬知,2013.12)
沈默之島,蘇偉貞著,全南玟譯(首爾:知萬知,2014.2)
天平,陶然著,宋珠蘭譯(首爾:知萬知,2014.2)

其他

酒徒,劉以鬯著,金惠俊譯(首爾:創批,2014)
跨世紀風華:當代小說二十家,王德威著,金惠俊譯(首爾:學古房,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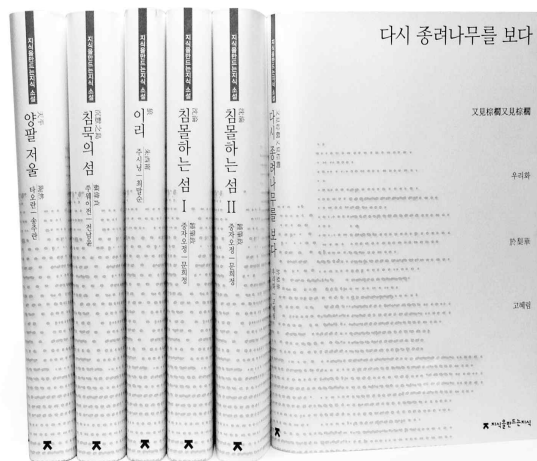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 연구실

韓國釜山大學 現代中國文化 研究室

Homepage. <http://cccs.pusan.ac.kr>
Email. cccs@pusan.ac.kr
Tel. +82-51-510-2088
Fax. +82-51-514-1780

타이완과 홍콩 근현대의 목소리

현대 중문문학 대표작품 3차 시리즈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又見棕櫚又見棕櫚) 우리화(於梨華) 지음, 고혜림 옮김

침묵하는 섬(沈淪) 1, 2 중자오정(鐘肇政) 지음, 문희정 옮김

이리(狼), 주시닝(朱西甯) 지음, 최말순 옮김

침묵의 섬(沈默之島) 쉰웨이전(蘇偉貞) 지음, 전남윤 옮김

양팔 저울(天平) 타오란(陶然) 지음, 송주란 옮김

2013년 12월 31일/2014년 2월 28일 출간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 cccs@pusan.ac.kr

☑ 시리즈 소개

부산대 현대중국문화연구소(현문실)은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와 함께 ‘현대 중문문학 대표작품 3차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5종은 모두 홍콩과 타이완의 작품으로, 2011년 발간된 1차 시리즈 7종, 2012년에 발간된 2차 시리즈 6종에 이어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이다.

☑ 3차 시리즈 소개

이번에 발간된 제3차 시리즈는 타이완과 홍콩 그리고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문문학의 다양한 면모와 성취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는 총 5종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작품은 1895년 이래 약 50년에 걸친 타이완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라든가 과거 150여 년에 걸친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1997년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과 같은 근현대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는가 하면, 물질 만능주의와 미국 유학 열풍 등 한국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회적 이슈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욕망과 사랑에 대한 각각의 독특한 시선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독자들은 이를 통해 타이완과 홍콩 및 세계 각지의 화인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동경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화(於梨華, 1931~)의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는 1967년에 발표된 그녀의 대표작으로, 1960년대 타이완의 미국 유학 및 이주 열풍을 통해 화인 디아스포라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 자신이 이미 1950년대에 미국 유학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후 미국과 타이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경험한 바 있는데, 그녀는 바로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을 그저 기회의 땅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장되고 허구적인 이미지에 비판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작가는 미국에 정착한 뒤에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화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고통과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민한다.

중자오정(鐘肇政, 1925~)의 《침몰하는 섬》은 타이완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 50년을 그린 ‘타이완 사람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1968년에서 출판되었다. 소설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타이완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과 맞서 싸웠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를 통해 타이완 사람들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다. 다른 한편으로 작품에는 외부의 침략과 식민을 거친 다양한 에스닉으로 구성된 타이완이 중국 대륙과 분리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겪었던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시닝(朱西甯, 1926~1998)의 《이리》는 그의 창작 시기와 작품 경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사고를 잘 보여 주는 다섯 작품을 엄선한 소설선이다. 군인 출신인 작가는 1950년대 반공 문학이 주도하던 시기에 등단하여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오랜 기간 창작과 편집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변화를 추구하고, 반공 문학뿐만 아니라 귀향 소설(回鄉小說), 모더니즘적 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창작했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일관되게 인간 자체에 대한 성찰이 드러났다. 《이리》에 게재된 다섯 작품에는 낙후한 봉건 문화의 허위를 비판하는 동시에 개별 인물의 욕망을 치밀하게 그려 낸 초기 작품에서부터 실험적인 형식과 탁월한 언어 조탁이 돋보이는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까지 그의 인간에 대한 믿음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녹아 있다.

쑤웨이전(蘇偉貞, 1954~)의 《침묵의 섬》은 주인공이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그녀에게 이상적인 인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쑤웨이전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페미니즘 작가이자 모더니즘 작가로, 《침묵의 섬》에서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녀의 대답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는 주인공의 의식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준다. 특히 실재와 상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술은 인간의 내면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 낸다.

타오란(陶然, 1943~)의 《양팔 저울》은 인도네시아 화교 출신으로 청소년기에 베이징으로 가서 유학을

한 뒤 나중에 다시 홍콩인이 된 작가 타오란이 말하는 홍콩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소설선이다. 이 책에 수록된 세 편의 중편소설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직전에 창작된 것들로, 당시 혼란스러웠던 홍콩 사회와 홍콩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작인 <양팔 저울>은 홍콩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민을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는 행동을 통해 홍콩의 미래에 대한 홍콩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홍콩 사회의 배금주의나 소외와 같은 어두운 면들을 통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사랑을 재조명한다.

‘현대 중문문학 대표작품 시리즈’를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홍콩과 타이완,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인 작가들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이자 기억이다. 그들은 중문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구축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중문문학 작가들을 단지 몇 마디의 말로 정의하거나 범주화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일 것이다. 현문실의 젊은 연구자들은 중문문학이 중국 대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상상의 장이라고 보며, ‘현대 중문문학 대표작품 시리즈’가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시리즈의 출간에는 현문실과 지만지의 노력 외에도 타이완 문학관의 리루이팅 관장, 타이완 등화대학의 쉬원웨이 교수, 하버드대학의 데이비드 왕 교수, 부산대학교의 김혜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협력과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당연한 말로 이번 시리즈의 출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바로 해당 작품들을 창작하고 한국에서의 출판을 허락해 준 작가들인 우리화, 중자오정, 주시닝, 쑤웨이전, 타오란 및 이미 고인이 된 주시닝의 유족이다. 아무쪼록 그분들의 성취와 관대함 및 옮긴이들의 노력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 옮긴이 소개

고혜림

고혜림은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 현대문학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중국 문학 번역 작업 및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역자의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현대문학과 화인화문문학, 화인 디아스포라문학과 세계 문화, 세계문학과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의 정체성 문제다. 이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학 쟁점, 문학과 영화의 관계, 이종 문화 간 충돌과 결합 등에 관한 문제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문희정

문희정은 타이완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 타이완문학연구소에서 수학했으며,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과정에서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에서 활동하며 타이완과 홍콩 문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말순

최말순은 부산대학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 중문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중정대학(國立中正大學) 타이완문학연구소(台灣文學研究所)를 거쳐 현재 국립정치대학 타이완문학연구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 영역은 식민지 시기 타이완 문학의 근대성에 관한 고찰이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의 현대 진입 과정 및 문학적 대응 등을 비교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전남윤

전남윤은 부산대학교와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중어중문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 소속으로 중국 대륙에 국한된 기존의 연구를 탈피해 타이완과 홍콩은 물론,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화인 집단에 대한 연

구와 작품 번역 등에 참여하고 있다.

송주란

송주란은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 소속으로 중국 문학 번역 작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대학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속으로 로컬리티 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 부산대 현대중국문화연구소 소개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현문실)은 다수의 청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 있다. 현문실 멤버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주로 중국 대륙에 국한되어 온 점에 유의하면서,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타이완·홍콩 및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화인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 및 중국계 사람으로서 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문학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멤버 각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출발하되 한국,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 몸소 생활하고 연구해 본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 및 중국 문화와 문학에 관한 새로운 시야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문실에서는 지만지와 함께 ‘현대 중문문학 대표작품 시리즈’를 출간 중이다. 현재까지 1, 2, 3차분 총 18 종이 출간된 이 시리즈는 지난 100년간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및 세계 각지에서 중문으로 발표된 대표적인 문학작품 가운데서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엄선한 것이다. 현문실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이 시리즈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화인들에 대해 새롭게 체험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4차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 목차 소개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
 후기

《침몰하는 섬》
 침몰하는 섬

《이리》
 이리
 동틀 무렵
 황금 제련사
 지금은 몇 시?
 장군과 나

《침묵의 섬》
 침묵의 섬

《양팔 저울》
 미로를 빠져나오며
 먼 하늘가 노랫소리에 묻어 있는 눈물
 양팔 저울

